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위령 성월 <죽음 앞에 선 우리, 주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해야 하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란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렵기만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죽음 앞에 같이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음 앞에 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0,28)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위령 성월을 보내면서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령 성월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었는지 묵상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아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9월 16일(수)~18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5개의 위원회 사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도의 성지를 순례하며, 신앙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사회사목국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10월 12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우요한 세례자요한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우요한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지향이 다를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정주의로 회개할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온정은 더 큰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나의 신앙과 하느님께서 택하시는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어떻게 응답하는 게 좋을지 성찰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9월에 참석하지 못한 미리암 수녀의 축일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일 특송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리암 수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봉사자 피정



10월 17일(토)~18일(일)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봉사자 피정이 음성 사랑의 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는 주제로 소침묵 가운데, 서울대교구는 17명의 대표봉사자가 참석하여 전국 교정사목의 봉사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교정사목에 관한 강의를 듣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정시설에 주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봉사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퉁이에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되었네”

이인현 프란치스코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봉사자

레지오 봉사자 한 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 활동이 어느덧 3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함께 회합을 이어가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레지오 회합의 운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궁금증과 고민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신앙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 뻗어시디움은 어느덧 1,162차 회합을 이어오고 있는 성모님의 군단입니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한 달에 두 번 봉헌되는 미사에서 도우미, 해설자, 독서자, 성가대 등으로 전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집회와 세례식, 견진성사 등 각종 천주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에는 ‘십자가의 길 14처’를 복사해 드렸더니 회합실 벽에 정성스럽게 붙여 놓고, 그 앞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그들에게는 기도와 묵상의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몽클해지기도 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가족과 봉사자 등 감사드려야 할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매주 오백 단에서 천단이 넘는 묵주기도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하고 깊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교도소라는 곳의 특성상 단원들의 출소와 퇴단이 이어지고, 새로운 단원들이 입단하면서 구성원의 변화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두 분의 단원을 떠올려 봅니다. 한 단원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돌아오면 깨알같이 정성스러운 붓글씨로 연하장을 만들어 봉사자와 교도관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카드 한 장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은 받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단원은 지병으로 병동 생활을 하던 중 교리를 배우고 세례성사를 받은 뒤 레지오에 입단했습니다. 이후 단장까지 맡아 활동하면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심을 회복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함께 활동했던 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직접 간식을 준비해 여러 차례 면회를 오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시작된 인연이 출소 후에도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퉁이에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되었네”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곳에서 시작한 작은 봉사가 어느덧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을 함께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신앙을 만나고, 다시 희망을 품으며 변화해 가는 단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봉사의 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아이들

- 세례와 동반



김현주 바울라 / 더품다교육공동체 강사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마태 19,14-15)

저는 어렸을 적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훗날 유아세례식에서 대모를 서면서 ‘아, 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겠구나’ 하고 저의 세례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는 말 그대로 영아와 유아 때 받는 세례입니다. 갓난아기를 포함하여 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통상 10세 미만까지)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 저에게 “모태신앙에 유아세례까지 받으셨다니 좋으시겠어요.”하고 말씀하시면, ‘그게 뭐가 좋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 본인의 의지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교정시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세례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에서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에게 세례를 줍니다.” 한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는 순간입니다.

서울남부교도소 안에 있는 만델라(소년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이미 세례를 받아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처음 만나는 청소년들, 새로 들어온 신입 친구들 가운데 어느 날 슬쩍 제게 다가와 “저는 00예요.” 하고 자신의 세례명을 먼저 밝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연이나 지연보다 훨씬 강력한 ‘종교연’이 발동되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내적인 친밀감이 생기고,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세례명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는 이에게 성인의 이름을 지어 주며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 이름을 먼저 살아 낸 신앙의 선배가 있고, 그분과 함께 기도해 주는 보이지 않는 벗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일이 익숙한 곳에서 자신의 세례명을 소리내어 불러 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그 작은 이름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곁에서 지켜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만델라의 아이들에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교리를 배우고,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던 날, 머리 위로 흐르는 물과 처음 불러 보는 자신의 세례명 앞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축스러워하면서도 눈빛은 맑았고, 서툴게 성호를 긋는 손끝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

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던 장면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과 상처를 안고 있고, 어른들에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례를 청하여 용기를 낸다는 것은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하느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라는 당부로 들립니다.

또한 세례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동반’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시설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곁에서 함께 걸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설 밖으로 나가서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다려 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모와 봉사자,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이들의 신앙 여정에 길동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느님께서 먼저 그들을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이들의 과거를 먼저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이들의 지난 잘못보다 앞으로 피어날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례의 물은 지난 시간을 지워 버리는 마법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안고서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잡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동반’이라는 말을 저는 ‘같은 속도로 걸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앞서 걸으며 끌고 가는 것도,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아이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을 때는 함께 침묵하고, 아이가 웃을 때는 함께 웃으며, 아이가 넘어질 때는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동반은 신앙을 이어 가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사실 이 길 위에서 더 많이 배우고 위로받는 쪽은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일지도 모릅니다.

유아세례를 받아 좋으냐고 물으시던 질문에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델라에서 새롭게 세례받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느님의 모습과 닮았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든, 어른이 되어서든, 담장 안에서든 담장 밖에서든 우리는 같은 물로 다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신앙인의 이름을 받아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받는 사랑이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만델라의 아이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만델라에서의 하루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한쪽에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 세상 밖에서도 아이들을 지켜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거울

김신아 마리아 막달레나 /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강사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직전에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기 전, 자신을 먼저 마주하는 자리인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따금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거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고 있고, 거울 속의 나는 거울 밖의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둘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비추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구치소와 교도소 출소예정자들을 만나 세금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창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신고 방법, 그리고 회계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 앞에 섰을 때 거울 앞에 선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분들 앞에 서서 제가 그들을 바라봄과 동시에 그들도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질문 속에서 제 안의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후회는 제 교만을 비추고, 그들의 희망은 제 무관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강의를 거듭할수록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분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 사람의 과거보다 한 사람의 '오늘'과 우리가 모두 품고 있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시 신뢰를 얻고 싶은 마음, 평범한 일상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 우리가 모두 품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제 눈은 아직 희미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희미하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희미하며,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하며, 쉽게 낙인을 찍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코린 13,12)

하느님께서 이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짜 자기 얼굴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란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기보다, 하느님의 시선을 닮아 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비치기를 바라며 살아내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습니다. 가족도 거울이고, 친구도 거울이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거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사람 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되 돌아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거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내 얼굴이 아니라 하느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뵈는 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내게 비추어 주는 모든 삶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교정사목 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사목 봉사자님들!
교정이라는 쉽지 않은 자리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큰 존경을 느낍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
지친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교정사목 봉사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함께 기도합니다.

모이세 드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2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11월 2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 미사 / 성요셉1군당성당, 광탄나자렛묘원
- 11월 2일(월)~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수원구치소 남사
- 11월 9일(월)~11일(수), 16일(월)~17일(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5차 소년수강명령 교육
- 11월 9일(월)~12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 11월 10일(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4차 보호자 교육
- 11월 14일(토)~15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세곡동 성당
- 11월 16일(월)~18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여주교도소
- 11월 18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1월 19일(목)~23일(월)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 11월 23일(월)~27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의정부교도소
- 11월 30일(월) 제36차 이사회 / 서울대교구청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09/12~10/15)

2026년 9월~10월에는 채호성 가브리엘, 남은옥 마리아, 길음동 성당 (주)청우공영 외 45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태균, 조원옥 제노, 손채훈 세례자요한, 전상훈, 길음동 성당 강규향 아우구스티누스 외 60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